

## 서구의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연구와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탐색\*

김 규 찬

(울산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케어, 이민, 레짐, 초국가화, 케어 아웃소싱, 케어-이민 결합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1. 서론

이 연구는 서구에서 이루어져온 '케어와 이민의 결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사례가 이 연구 영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얼핏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학문 영역(케어와 이민)의 결합 현상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발전해 왔다. 이민이 다양한 학문의 혹은 학제간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Castles and Miller, 2009). 이민(특히 국제이민)은 매우 복잡적이고 역동적인 현상으로서 이민자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관련된 국가들과 시민들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민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권, 인권, 노동시장, 경제개발과 안보 등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Castles and Davidson, 2000; Cohen and Kennedy, 2000).

이런 폭넓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종종 어느 학문 분야에도 일관성 있게 들어맞지 않는 주제로 여겨지기도 한다(Hugo and Piper, 2007). 이민의 이러한 애매한 학문적 위치는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연구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Sainsbury(2012)는 비교연구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사회정책 연구는 이민이나 이민자 문제를 전후 복지국가 맥락에서 부차적인 이슈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정책 연구에서 이민과 이민자가 등한시 된 주된 원인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와 사회권에 대한 분석이 계급(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둠에 따라 성(gender), 인종/민족, 장애 혹은 연령 등과 같은 사회적 구분들(social divides)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간과되었기 때문이다(Lister, 1997; Craig, 2004; Wilkinson and Craig, 2012).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분석 단위가 우선시됨으로써 국제적 혹은 초국가적 요소들을 사회정책 연구에 포함시킬 여지가 크지 않았으며, 이는 심지어 비교정책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Mahon and Robinson, 2011). 몇몇 예외적인 연구들도 이민자 증가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어떻게 복지국가에게 도전과 위협이 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국가 중심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van Oorschot and Uunk, 2007).

한편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민이라는 주제를 복지국가/사회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연구 관행에 도전해 왔다. 몇몇 학자들은 이민(자들)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편견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Banting et al., 2006), 반대로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민자들의 사회적 포섭과 배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는지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MacAuslan and Sabates-Wheeler, 2011; Sainsbury, 2012). 또한 일부는(주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와 젠더화/인종화(gendered/racialised)된 이민과의 관련성을 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Lister et al., 2007; Lutz, 2008b; Kilkey and Palenga-Möllenbeck, 2010; Williams, 2010; Kofman, 2012; Yeates, 2012; Anderson and Shutes,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화의 능동적인 행위자(agent)인 이민자들이 개별 복지국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들이 이민 혹은 이민자와 복지국가(그리고 그 정책들)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련성을 조명하기 위해 특별히 케어(care)라는 개념을 핵심적

인 분석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 케어 개념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 복지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와 이민(자)과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그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발견해 왔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연구물들을 검토했다. 대상 문헌의 선정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주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영어로 출판된 연구들로 범위를 제한하고, care, migration, transnationalisation, regime, intersection을 핵심적인 검색어로 사용했다. Care는 한국어로 '돌봄'으로 번역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해석상의 폭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원어 발음대로 '케어'라고 사용한다. 이것은 regime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sup>1)</sup> 논문의 핵심어 중 하나인 intersection의 경우는 사전적 의미인 '교차점' 대신 의미전달이 용이하도록 '결합'으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아래 본문에서는 케어, 이민 그리고 케어-이민 결합에 대한 연구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우선 케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고 보완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한다. 이어서 케어 개념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현대의 국제 이민의 특성 속에서 어떻게 케어가 초국가화(transnationalisation)되고 이민자화(migrantisation)되는지 살펴본다. 다음 절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독특한 연구영역으로서 케어와 이민의 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한다. 뒤이어 이를 토대로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논문의 목적과 범위상 마지막 절은 한국의 경험이 케어-이민 결합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논의로 제한됨을 미리 밝혀둔다.

## 2. 케어: 개념의 확장과 분석도구로서의 유용성

케어는 복잡하고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그 개념적 복잡성은 인간 행동으로서 케어의 다면적 특성 자체로부터, 혹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부터 기원한다. 그중 특별히 영향력 있는 접근방법은 케어를 '노동(labour)'으로, 특별히 여성의 노동으로 보는 것이다. 페미니즘 학문적 전통 위에서 케어는 종종 여성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되어왔다(Daly and Lewis, 2000; Daly, 2002; Rummery and Fine, 2012). 케어는 무급 혹은 유급으로 전달되는 육체적, 감정적 노동으로 표현되며, 비용과 책임이 수반된다는 면에서는 임금(생산)노동과도 유사성이 있다(Hooyman and Gonyea, 1995; Bowden, 1997; Daly and Lewis, 2000; Ungerson, 2000; Glucksmann, 2005).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케어노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케어 노동은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케어의 정의

1) Regime은 특정 이슈에 대한 주된 정책 유형과 논리에 따른 분류(clustering)를 위한 개념이지만(Esping-Andersen, 1990; Lister et al., 2007)), 여기서는 케어와 이민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와 규범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Williams and Gavanis, 2008 참조할 것).

를 제한하기보다는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케어 개념을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Rummery and Fine, 2012). Tronto(1993)는 예를 들어, 케어를 우리의 몸과 환경을 포함한 세상을 유지하고 고치고 지속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케어 개념을 매우 확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케어는 종종 사회적 재생산 노동(reproductive labour)으로 정의되기도 한다(Kofman, 2012; Yeates, 2012).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란 사람을 일상적으로 혹은 세대 간에 걸쳐 유지시키는 일련의 활동과 관계로 정의되며, 그런 활동들에는 쇼핑, 요리, 청소 및 정비 등 일상적, 필수적 가사활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성인들에 대한 부양 제공, 정서적 지지, 그리고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Glenn, 19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 할 때, 인간 존재 자체의 재생산, 즉 육체적 존재로서 사람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Kofman, 2012). 예를 들어 Kilkey(2013)는 가족의 생애주기를 따라, 관계의 형성(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에서부터 개인과 가족의 유지보존을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제반 활동을 모두 케어 노동에 포함시킨다. 비록 이런 광범위한 케어의 개념화가 케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위험이 있지만(Daly and Lewis, 2000)<sup>2)</sup>, 이런 폭넓은 접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생산 노동들이 생산 노동과 대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케어를 '노동'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케어 노동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은 대부분 무임금의, 미가치부여된 그리고 탈정치화된 여성의 재생산 노동들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Daly and Lewis, 1998; Lutz, 2008a; Yeates, 2011).

케어의 개념화는 케어의 공급과 수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강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되었다. Thomas(1993)는 예를 들어 케어가 고도로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것이어서, 케어에 대한 분석은 노동 그 자체의 형태와 속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계 그리고 케어를 주고받는 물리적 환경(settings)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연구자들은 주어진 제도적 환경 하에서 케어 역할 혹은 책임이 계급, 성 그리고 인종을 축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Lloyd, 2000; Rummery and Fine, 2012). 케어는 시간적(일상적인 그리고 세대에 걸친) 맥락과 공간적(가족, 기관, 국가 등) 맥락에서 행해지기 때문에(Peterson, 2003), 필연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구조화 될 수밖에 없다(Bjeren, 1997). 학자들은 이 케어 배분의 구조화 유형, 즉 '케어레짐(care regime)'은 주류 복지국가(레짐) 연구의 대안<sup>3)</sup>으로서 케어 책임의 배분

2) 이런 이유로 몇몇 연구자들은 보다 좁은 케어의 정의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케어는 아동, 환자나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Daly, 2002). 이런 협의의 정의는 직관적이긴 하지만 케어의 다면적 속성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Esping-Andersen(1990)의 연구로 대표되는 소위 주류 복지국가 연구들은 주로 계급관계와 남성 임금 노동자들의 사회권에 초점을 둬으로써, 사회정책의 젠더적 차원을 반영하지 않고 사적 영역(가족)의 중요성을 등한시 한다고 공격받아왔다(Lewis, 1992; Orloff, 1993; Lewis, 1997; Lister et al., 2007). 케어를 복지국가 분석의 핵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젠더화된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회학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Daly and Lewis, 2000).

에 관여하는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유형을 비교·대조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Anttonen and Sipilä, 1996; Daly, 2002; Lister et al., 2007). 특히 케어레짐 연구는 케어에 대한 책임을 가족·국가·시장 사이에 재분배 시키는 제도적 배열과 그 변화뿐만 아니라(Lister et al., 2007), 케어 공급에 관한 사회·정치적 담론과 규범, 소위 '케어문화'의 형성과 변화도 분석요소(indicators)로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lliams, 2012).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분배와 구조화가 개인적, 가족적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지역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 수준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케어가 이민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Kofman, 2012). 초기 연구들 중에 예를 들어 Graham(1991, 1993)은 성,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 관계(위계)가 케어의 공급과 소비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본인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중·상위 계층의 가족들을 위해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사실이며(Glenn, 1999), 이들의 역할이 이후에 여성 이민 케어/가사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 또한 폭넓게 관찰되었다. 이민자(자)의 케어 공급에 관한 국가(제도)의 개입을 고려하면 케어의 사회적 배분의 역할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1950-60년대 영국에서는 본국 여성들을 대신해서 복지시설의 케어노동 수요를 채우기 위해 식민지들로부터 케어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공급되었다(Williams, 1989, 2010; Wilkinson and Craig, 2012). 이후에도 케어노동과 관련된 국제 이민자의 꾸준한 증가는 변화하는 케어문화와 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케어정책 및 이민(자)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케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통해 케어노동이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고 배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연구 분야, 즉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연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제4절 참조). 이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이민을 통해 케어가 초국가화(transnationalised)되는 기제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 3. 이민을 통한 케어의 초국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어 연구자들은 케어개념을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유형과 변화를 분석하는 핵심적 도구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여러 증거를 볼 때 세계화는 복지국가에서 젠더, 계급, 인종적 관계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어 왔으며 현재 케어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국가 경계를 넘어서서 형성되고 있다(Yeates, 2005; Deacon, 2007; Orozco, 2009).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를 분석의 단위로 하고 국가 차원의 정치와 정책에 초점을 두는 소위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한계(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를 극복하고, 케어의 초국가적 속성(Williams, 2011; Yeates, 2011)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어가 초국가화되는 직관적인 기제의 하나는 초국가기관(국제기구, 국제NGO, 다국적기업 등)의 개입을 통해서이다(Deacon, 1997; Mahon, 2011). 또 다른 방식은 이민자가 다양한 형태로 케어 공급의 국제혼합(global mix of care provision)에 기여하는 방식이다(Gough and Wood, 2004). 이번 절에서는 이 두 번째 메커니즘에 대

해 더 자세히 살펴본다.

### 1) 이민의 여성화와 케어의 이민자화

세계화의 핵심적인 동학으로서 국제적인 인간의 이동(human mobility)은 정치·문화적 변화,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그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Urry, 2007).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단지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정치적 차원에까지 이른다. 결과적으로 한 때 국가적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것들이 빠른 속도로 국가간(inter-national) 혹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다(Castles and Davidson, 2000). 전통적인 국제 이민의 경로들이 유지되는 한편 새로운 유형과 흐름들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며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현대 이민의 여러 경향적 특징들 중에서 케어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민의 여성화(the feminisation of migration)'(Castles and Miller, 2009)이다.

젠더화된 국제이민의 한 부분으로서 이민의 여성화는 여성이민자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민에 있어서의 그들의 변화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이민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지난 몇 십 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과 동반하거나 현지에서 합류하기 위한 종속적 위치에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UN-INSTRAW, 2007). 특히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 진출업종인 의류나 전자업종 조립라인과 같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환대업, 의료/케어, 가사 노동 등 서비스업으로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또 하나의 중요한 여성화된 이민 경로 중의 하나는 결혼이민이다. 이는 흔히 외국인 신부와 이민 대상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특별히 아시아내 이민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Yamanaka and Piper, 2005).

주목할 점은 이민의 여성화가 '케어노동의 이민자화(migrantisation of care work)'라는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Kilkey et al., 2010). 지난 십 여 년 간 북미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사적 및 공적 케어 환경에서 이민자들의 개입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구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 가족 케어자원의 축소 그리고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재구조화로 인한 공적 케어 서비스의 부족으로 생겨난 케어 공백(care deficit)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Williams and Gavanas, 2008). 만약 국가가 특정한 이민정책이나 케어정책을 통해 이민자가 케어공백을 보충하도록 장려하는 경우에는 이민자에 의존한 케어 관습을 규범화(normalisation)시킴으로써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Williams and Gavanas, 2008). 이런 배경하에서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 양상은 기존의 케어의 상품화 혹은 현금 지원을 통한 케어의 재가족화와 관련된 논쟁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면서 새로운 사회정책 연구의 영역으로 급부상했다(Lister et al., 2007; Yeates, 2011).

## 2)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s)

위에서 논의한 이민의 여성화와 케어노동의 이민자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은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s, 이하 GCC)' 연구이다. GCC는 케어를 주고받는 활동이 국가내와 국가간 차원에서 연결되고 분업되는 기제를 개념화 한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가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여 케어/가사 노동자로서 케어를 공급하고 자신의 이민으로 인해 발생한 케어의 공백은 본국의 다른 사람(주로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메워지는 형태로 나타난다(Hochschild, 2000; Parreñas, 2001; Ehrenreich and Hochschild, 2003; Yeates, 2004b). GCC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어는 국가와 국제적 요소에 의해 조정되는 일련의 인간 연결고리로 이루어진다. 둘째, 케어는 핵심적인 재생산 노동이며 그 수요는 내부의(국가내) 케어 자원으로 종종 충분히 충족되지 않음으로 아웃소싱을 필요로 한다. 셋째, 세계화 맥락 속에서의 케어의 정치경제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케어의 수요-공급에 관한 분석이 국가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넷째, 케어노동의 국제적 분업은 계급, 젠더, 인종 그리고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로 분화 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낸다. 다섯째, GCC의 형성과 해체는 기존의 국제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혹은 강화한다(Yeates, 2004b; Williams, 2010).

GCC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케어 분석에 초국가적 차원을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케어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조직되고 제공될 수 있는지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 자신을 포함하여 최소한 두 정부, 소비자(가족 고용주 포함), 알선기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이 이 과정에 관여한다. 주의할 점은 GCC에서 '글로벌(global)'이란 단순히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케어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강력한 초국가적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케어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GCC 개념이 개인들의 자기결정능력(agency)와 개별정부의 정책 자율성(policy autonomy)을 상당 수준 인정한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Yeates(2011)는 GCC 개념이 세계적(globalist)이나 국제적(internationalist)이라기보다는 초국가적(transnationalist) 관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GCC는 기존 케어 연구의 국가 중심의 방법론적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세계화-이민-케어의 결합을 이해하는 강력한 분석도구 역할을 해 왔다(Yeates, 2005; Kilkey et al., 2010). 핵심적으로 GCC 개념은 세계화와 이민 그리고 복지국가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계급, 성 그리고 인종적 관계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Yeates, 2005, 2012). 초기의 GCC 연구의 대상은 주로 저기술 여성 케어노동자들(주로 어머니)과 가정내 케어노동 환경에 국한되었지만, 이후 다양한 기술수준과 남성 그리고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케어 환경을 분석에 포함시키며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해 나갔다(Yeates, 2004a; Kofman and Raghuram, 2006; Kilkey, 2010; England and Henry, 2013; Kilkey et al., 2013).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최근의 이론적 발전은 국가와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Williams, 2010, 2012). GCC가 아무리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제도적 진공상태에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이민과 케어에 관련된 국가의 정책들이 케어의 국제화/초국가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GCC 분석틀을 지리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해진다. 공적 케어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미국적 맥락을 토대로 형성된 GCC 시나리오가 다양한 유형의 케어정책을 발전시켜온 소위 복지국가들의 경우와 완벽히 들어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Kilkey et al., 2010; Williams, 2010). 이것이 특별히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양한 정책(레짐)들의 특징과 상호작용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이다. 다음 절은 본 논문의 초점인 바로 이 분야의 연구들에 대해 논의한다.

#### 4. 케어(레짐)와 이민(레짐)의 결합 연구

GCC 연구의 예에서 보듯이 케어의 초국가화 연구는 케어관련 이민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을 축으로 재생산 노동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분업화되는지 밝혀 왔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각 복지국가내에 구축된 이민레짐과 케어레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양태가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 분야와 복지국가/케어 분야 간의 학문적인 상호 소통의 부족 탓이다(Kilkey et al., 2010). 한 국가의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케어의 국제분업이라는 현상을 더 넓은 정책경제학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케어의 국제화의 양태가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혹은 같은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케어가 이민과 결합하는 현상은 세 레벨-개인적/가족적 차원, 정책(규제)이나 담론 등 국가적 차원, 국가간 노동이동 등에 관한 국제적 차원 -에서 관찰/분석 가능하다(Williams, 2010). 그 중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레짐들(이민레짐, 케어레짐, 젠더레짐, 고용레짐 그리고 복지국가레짐)의 상호작용과 변화에 분석의 주안점이 있다(Lister et al., 2007; Lutz, 2008a). Lister 외(2007: 138-139)는 이러한 레짐들 간의 영향관계와 변화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남성 부양자 모델'에서 '성인-노동자 모델'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복지국가레짐의 변화는 여성의 임금 노동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케어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케어에 대한 현금 지원(cash for care)과 같은 특정한 케어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선호는 시장을 통한 케어 아웃소싱을 장려함으로써 케어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킨다. 또한 특정한 이민 정책의 도입은,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쿼터할당이나 케어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비자, 케어의 초국가화/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것은 향후에 이민의 여성화와 같은 이민 흐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적인 케어의 이민자화 혹은 케어 아웃소싱의 정도는 그 국가/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적 유산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표준화된 국가간 비교연구가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역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Williams, 2010). 영국,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Williams와 Gavanas(2008)의 연구는 고도로 엄격한 비교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초기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 연구의 좋은 예로서, 복지국가/사회정책 연구와 이민 연구가 어떻게 상보적으로 통합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Williams와 Gavanas(2008)는 서로 다른 복지국가레짐 유형을 가진 이 세 나라들에서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유형이 수렴 혹은 분화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연구에 포함된 세 나라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용관행과 제한적인 공적 케어 서비스 그리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겪는다는 점에서 수렴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 케어 문화 그리고 이민 케어노동자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케어에 있어 이민레짐-케어레짐의 결합을 분석한 Williams와 Gavanas (2008)와는 달리, Spencer 외(2009)는 흔히 동일한 복지국가레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노령화의 공통적인 경향 속에서 네 나라 모두에서 이민자들이 케어노동의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노인케어의 부족과 가사노동자 공급의 부족이 이민 케어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주요 이유라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저기술 이민 케어노동자들이 종종 가족이민과 같이 비노동이민 경로를 통해 유입됨으로써 노동이민 정책만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교연구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들을 통해서도 연구자들은 케어노동이 이민자화 되는 다양한 유형을 해당 국가의 특정한 복지, 젠더 그리고 이민레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지중해 국가들은 특별히 이민 케어/가사 노동자들의 두드러진 증가로 인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스페인에서는 가족주의 케어레짐의 역사적 전통과 지난 이십여 년 간의 개방적인 이민제도와 케어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특별한 이민 프로그램(예를 들어 가사/케어 이민자 쿼터할당)의 결합으로 인해 가족내에서 케어노동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이민 케어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증가되었다(León, 2010). 한편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다른 남유럽 국가에서처럼 케어 수요의 증가와 여성화된 이민을 경험했지만, 이민 케어/가사 노동자들의 유입이 상류층 가정들에게 제한됨으로써 스페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가족내 이민자 케어(migrants in the family)'로 불리는 케어-이민 결합 모델이 광범위하게 출현하지는 않았다(Wall and Nunes, 2010).

빈도는 낮지만 보수주의 복지(케어)레짐 국가들도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포함되어 왔다. Lutz와 Palenga-Möllnbeck(2010)은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들 역시 점점 더 케어/가사 노동 공급을 위해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매우 통제적인 이민레짐하에서 단지 암묵적으로만 인정 될 뿐이며, 사적 케어노동 시장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은밀한 틈새영역이 되었다(Lutz and Palenga-Möllnbeck, 2010). 사회민주주의 국가(케어레짐 유형상 소위 '돌봄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비교적 매우 유사한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지만, 흥미롭게도 이민레짐의 경우는 단일한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이민정책에 있어 스웨덴은 다소 자유적이고 덴마크는 훨씬 더 제한적이며 노르웨이는 그 중간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Brochmann and Hagelund, 2011). 그러나 이민자들을 통하여 케어/가사 노동을 상품화하는 경향은 이들 국가 모두에서 비슷하게 관찰됨에 따라, 북유럽 국가들이 통념과는 달리 케어의 이민자화의 예

외적 경우(outlier)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Williams, 2012).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민간영역의 성장, 시장화 그리고 최근의 소비자 선택에 대한 강조는 이민레짐과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케어 서비스의 시장(특히 노인케어와 입주 가사노동 영역)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Bikova, 2010; Stenum, 2010; Lutz, 2011; Brennan et al., 2012; Gavanas, 2013).

이러한 유럽의 경험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무엇인가? 이민(자)을 통한 케어 공급의 초국가화 혹은 케어의 국제분업이라는 현상은 서로 다른 복지국가 레짐을 가진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적 수렴의 이유는 여성의 급속한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와 가족의 케어 자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일과 유급 노동간의 균형의 어려움이라는 신사회위험의 증가(Taylor-Gooby, 2004)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상이한 케어-이민의 결합 유형을 발달시켜 왔다. 이런 분화의 원인은 단순히 공적 케어의 부재(absence)라기보다는 정책(서비스)의 속성(nature)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Williams and Gavanas, 2008). 예를 들어 최근 케어 시장의 성장과 유럽에서의 케어에 대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은 케어(재)분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이런 지원금은 이민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케어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된다(Rummery and Fine, 2012). 남부유럽의 경우에서는 공적 케어 공급의 부족, 저임금 회색 케어노동자 시장, 그리고 케어이민을 촉진하는 이민정책이 결합하여 이민 케어노동자를 통한 '케어 아웃소싱(care outsourcing)'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Daly, 2012).

지금까지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 연구는 소위 선진(복지)국가들의 사례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화된 이주와 이민자화된 케어노동은 서구의 전통적인 이민자 유입국가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특별히 여성 이민의 증가는 비이민국가(혹은 이민 송출국가)를 이민자 유입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신부와 케어/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새로운 이민 유입국의 경우에서도 관찰되며, 미래에도 이 유형의 여성 이민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astles and Miller, 2009; Castles, 2014). 아시아 국가들이 케어관련 이민자의 국제적 이동에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그들을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Daly, 2012). 다음절은 새로운 이민 유입국가가 된 한국의 경험 이 어떠한 측면에서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5.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대한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민자 송출원일 뿐만 아니라, 이민 도착지로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이민자 총계에서 비교적으로 작은 3.3%를 차지하지만,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민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UN-DESA, 2013). 새로운 이민 유입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점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레짐과 케어레짐(그리고 복지국가레짐)을 연결시키는 정책연구는 드물다(Ochiai, 2009). Michel과 Peng(2012)의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를 다루는 드문 사례 중의 하나

이며, 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늘어나는 케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의 차이(그 차이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존재한다)로 인해 서구에서 개발된 분석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이 존재하겠지만 (Milligan and Wiles, 2010; Huang et al., 2012), 새로운 이민자 수용 국가로서 한국의 사례는 기존의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아래와 같이 적어도 두 측면에서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한국의 사례는 케어-이민 결합 논의를 동아시아 국가로 지리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민자를 통한 케어의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현상의 배경으로 널리 경험되는 '케어의 위기'를 들었다(Bettio et al., 2006; Williams, 2012). 한국 역시 빠른 고령화와 가족의 삶과 가족의 책임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요-공급에 있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Chan et al., 2011; Daly, 2012).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등장은 서구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Peng, 2010), 개인(특히 여성)과 가정의 케어의 책임을 정부나 시장과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생산적(productivist) 복지국가레짐(Holliday, 2000) 혹은 발전주의적(developmental) 복지국가레짐(Kwon, 2007)으로 알려진 한국 복지국가는 주로 사회보험을 통한 생산 노동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발전해 왔으며, 케어는 최근까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Peng 2010).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효)와 가부장적 젠더관계는 가족과 여성중심의 케어 공급을 우선시하고 규범화 했다(Sung, 2003; Kim and Choi, 2013). 보편화된 공적 케어 서비스 및 접근성 높은 민간 케어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가족이 거의 유일한 개인 케어 서비스 공급자원이 됨으로써(Baek et al., 2011; Chan et al., 2011; Ochiai, 2009; Peng, 2010), 소위 '가족주의적 복지(케어)레짐'의 특징을 보여 왔다(Esping-Andersen, 1999). 그러나 한국의 케어레짐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고정된 그림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케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케어는 한국 복지 정치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케어를 둘러싼 그러한 환경 변화와 케어의 정치화 역시 '케어의 위기' 혹은 그로인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Kim and Kilkey, 2016).

서구와 마찬가지로(Bonoli, 2007; Daly and Lewis, 2000; Lister et al., 2007; Taylor-Gooby, 2004),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에서의 케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구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급감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노인케어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인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재생산(출산) 실패로 인한 국가의 존립가능성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인구노령화(더욱 중요하게는 인구학적 미래에 대한 전망)는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공공정책 개혁 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Government of Korea, 2010). 둘째로, 가족 케어자원의 축소를 들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세대규모 및 세대구성의 축소)는 가족 구성원간의 동거 부양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Daly와 Lewis(2000)가 지적하듯이, 결혼, 가족, 가족 간 부양의무 그리고 기대 성역할에 대한 규범 및 태도 변화 역시 전통적인 가족 간의 케어 교환관계를 계속 당연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육구 포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정내 주 케어 공급자(여성)의 상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그들이 담당하던 케어 노동의 공백을 메울, 혹은 적어도 그들이 일과 케어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케어 자원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케어의 위기 속에서 그간 가족과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할당 되어있던 케어 책임을 적절히 재분배하는 것이 사회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Government of Korea, 2010). 세부적인 내용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케어 책임의 분배구조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케어의 사회화(만드시 공공화는 아닐지라도)가 진행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케어와 노인케어 영역에서 케어 서비스의 보편화와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휴가(leave)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거나 새로 도입되고 있다. 수준은 매우 낮지만 (특히 아동)케어에 대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원공급 및 규제 역할의 확대가운데서도 민간 영리영역을 통한 케어의 공급(즉, 케어의 상품화)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케어책임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케어가 사회화 및 상품화되는 경향 속에서, 한국도 유럽에서처럼 이민자들의 케어 분야로의 유입 확대, 즉 케어의 이민자화가 진행될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국에서의 케어위기와 케어레짐의 변화를 이민자 증가와 이민레짐의 형성과 관련지어 고찰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이민(레짐) 유형을 기존의 케어-이민 결합 논의에 결합함으로써 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이민 유입국으로서의 급속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1년 이상) 체류 이민자 수는 약 1.2백만(로4),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이민자 증가 추세를 보이는 나라 중 하나이다(UN-DESA, 2013).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특수한 이민자 유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비이민국가였다. 하지만 이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민자수(정부 통계 기준)는 총인구 대비 3%를 넘어섰고,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인구 유입국으로서 한국은 Castles과 Miller(2009)가 묘사하는 '이민의 시대 (age of migration)'의 특징 중 '이민유입국으로의 전환의 증가(proliferation of migration transition)'와 '이민의 여성화(feminisation of migration)'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이민유형으로 보면 단순 노동을 위한 저기술 노동이민과 여성 결혼이민, 인종적으로 보면 다양화되고 있긴 하지만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급속한 이민자 증가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1990년대 이후 저기술 노동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이지만, 여성이민자의 증가는 같은 시기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급속한 이민자 증가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빠른 출산율 하락과 가속화된 노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민자를 통해 이런 인구학적 변화의 부작용을 해

4) 이는 한국 정부가 집계하는 체류외국인 통계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 통계는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UN의 이민자 정의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이민자만 포함한다(참조: UN,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migration/migrmeth.htm>).

소하고 경제 동력을 부활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의한 잠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IOM, 2010). 전체인구대비 이민자 비중을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단일 인종적 인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UN-DESA, 2013), 국제결혼의 증가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의 형성은 한국처럼 오랫동안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나라에게 중요한 정책이슈(예를 들어, 다문화정책이나 통합정책)로 나타나고 있다(Kim and Oh, 2011; Parreñas and Kim, 2011).

한국은 1990년대 초반의 이민 정책 부재 혹은 실패의 경험을 거치면서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발전시켰다. 한국의 이민레짐은 이민자 유입, 정착 그리고 통합과 관련하여 소위 '관리 이민(managed migration)'의 전형을 보여준다. 핵심적인 관리 기제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기술 수준, 인종/민족, 혹은 성을 축으로 차별적 권리를 할당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민레짐은 기술수준에 따라 이중적인 접근을 하는 노동이민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한다(Castles and Miller, 2009). 고기술/전문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그들에게 폭넓은 노동 및 사회권을 부여하는 반면, 저/비기술 노동이민자들의 유입은 철저히 관리되며 그들은 기술 노동이민자들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많은 전통적 이민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고기술/전문 노동이민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시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이민 성장은 저기술 노동이민자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둘째로, 한국은 매우 인종(엄밀히 말해 '민족') 특화적인 이민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소위 동포라고 불리는 특정 이민자들에게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정착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구축해 왔다. 특히, 동포들만 케어 직업 등 서비스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케어의 이민자화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셋째, 한국의 이민레짐은 특정 젠더에 특화되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젠더화되어 있다.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기술 노동 이민의 경우 남성화되어 있고, 결혼이민의 경우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유형으로 고도로 여성화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이민의 전과정(심지어 한국에 입국전부터)에 걸쳐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달시켜 왔다는 점은 많은 정책적, 학문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Kim and Kilkey, 2016). 집합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결혼 이민자들의 완전한 통합과 궁극적으로는 동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정당화하는 주도적인 정책 논리가 결혼 이민자들을 그들 자체로 능동적인 시민으로 여기기보다는 아내,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들을 규정(frame)하는 것이다(IOM, 2010). 제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노동으로 폭넓게 규정할 경우, 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케어노동에 개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토론한 한국에서의 케어의 위기에 대응한 케어의 사회화 및 상품화로 요약되는 케어레짐의 변화와, 이민 유입 국가로의 급속한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소위 동포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민과 정착의 기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구축된 한국의 이민레짐이 결합하여,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케어의 이민자화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 본 논문이 목적과 범위상 이 두 유형의 이민자들이 변모하고 있는 케어 환경에서 어떻게 케

어노동의 공급에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요컨대 한국의 사례는 광범위한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서도 북미나 유럽에서처럼 케어의 이민자화라는 수렴적 경향이 지지되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이민유형, 즉 동포이민과 결혼이민(넓게는 가족이민)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케어(레짐)와 이민(레짐)의 결합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연구물들을 검토했다.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케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케어 연구들은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서 케어가 개인과 가족차원에서 생산노동과 대등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기여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케어개념이 주류 복지국가/사회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대안적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 분석의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민족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한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을 광범위하게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기존의 복지국가(레짐) 연구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대상 문헌의 광범위성과 각 주제들의 복잡성에 비해 매우 제한된 고찰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아시아내 이민유입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케어-이민 결합 분야 연구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였다고 본다. 본고를 통해 한국에서도 케어(사회정책) 연구자들과 이민 연구자들 간의 상호소통의 부재가 극복되고 나아가 일견 무관해 보이는 두 영역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Anderson, B. and Shutes, I., 2014, "Migration and Care Labour",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Anttonen, A. and Sipilä, J.,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 Baek, S.-H., Sung, E., and Lee, S. H., 2011, "The current coordinates of the Korean care regim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7(2): 143-154.
- Banting, K., Johnston, R., Kymlicka, W., and Soroka, S., 2006, "Do multiculturalism policies erode the welfare state?: An empirical analysis", 49-90, i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edited by Banting, K. and Kymlicka, 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ttio, F. and Plantenga, J., 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10(1): 85-113.
- Bettio, F., Simonazzi, A., and Villa, P., 2006, "Change in care regimes and female migration: The 'care drain' in the Mediterranea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3): 271-285.
- Bikova, M., 2010, "The snake in the grass of gender equality: Au-pairing in women-friendly Norway", 49-68, in *Global Care Work: Gender and Migration in Nordic Societies*, edited by Isaksen, L.W., *Lund: Nordic Academic Press*.
- Bjeren, G., 1997, "Gender and reproduction", 219-246,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mobility and Develop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Hammar, T., et al., *Oxford: Berg*.
- Bonoli, G.,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 Bowden, P., 1997, "Caring: Gender-sensitive Ethics", *London: Routledge*.
- Brennan, D., Cass, B., Himmelweit, S., and Szebehely, M., 2012, "The marketisation of care: rationales and consequences in Nordic and liberal c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77-391.
- Brochmann, G. and Hagelund, A., 2011, "Migrants in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1(1): 13-24.
- Castles, S., 2014, "International migration at a crossroads", *Citizenship Studies*, 18(2): 190-207.
- Castles, S. and Davidson, A.,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Basingstoke: Palgrave*.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Chan, R. K. H., Soma, N., and Yamashita, J., 2011, "Care regimes and responses: East Asian experiences compared",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7(2): 175-286.
- Cohen, R. and Kennedy, P. M., 2000, "Global Sociology", *Basingstoke: Palgrave*.
- Craig, G., 2004, "Citizenship, exclusion and older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33(1): 95-114.

- Daly, M.,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_\_\_\_\_, 2012, "Making policy for care: experience in Europe and its implications in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2(11/12): 623-635.
- Daly, M. and Lewis, J., 1998, "Introduction: Conceptualizing social care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1-24, in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edited by Lewis, J., Aldershot: Ashgate.
- \_\_\_\_\_,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Deacon, B., 1997, "Global Social Policy", London: Sage.
- \_\_\_\_\_, 2007, "Global Social Policy and Governance", London: Sage.
-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 (eds), 2003, "Global Women",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England, K. and Henry, C., 2013, "Care work, migration and citizenship: international nurses in the UK",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4: 1-17.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ondon: Polity Press.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vanas, A., 2013, "Elderly care puzzles in Stockholm: strategies on formal and informal markets",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3(2): 57-116.
- Glenn, E. N., 1992, "From servitude to service work: historical continuities in the racial division of paid reproductive labor", *Signs*, 18(1): 1-43.
- \_\_\_\_\_,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and race: An integrative framework", 3-43, in *Revisioning Gender*, edited by Ferree, M. M., et al., Thousand Oaks, CA: Sage.
- Glucksmann, M., 2005, "Shifting boundaries and interconnections: Extending the 'total social organisation of labour'", *The Sociological Review*, 53(s2): 19-36.
- Gough, I. and Wood, G. D., 2004, *Insecurity and Welfare Regim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Social Policy in Development Con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vernment of Korea, 2010, "The 2nd Basic Plan for the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2011-2015", [http://www.precap.go.kr/poli\\_basi2.lo](http://www.precap.go.kr/poli_basi2.lo).
- Graham, H., 1991, "The concept of caring in feminist research: the case of domestic service", *Sociology*, 25(1): 61-78.
- \_\_\_\_\_, 1993, "Social divisions in caring",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6(5): 461-470.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130-146, in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edited by Hutton, W. and Giddens, A., London: Vintage.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4): 706-723.
- Hooyman, N. R. and Gonyea, J. G., 1995,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Policies for Gender Justice*, Thousand Oaks, CA: Sage.
- Huang, S., Thang, L. L., and Toyota, M., 2012, "Transnational mobilities for care: Rethinking the dynamics of care in Asia", *Global Networks*, 12(2): 129-134.



- Hujo, K. and Piper, N., 2007, "South - south migration: Challenges for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 50: 19-45.
- IOM, 2010, "World Migration Report 20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free/WMR\\_2010\\_ENGLISH.pdf](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free/WMR_2010_ENGLISH.pdf).
- Kilkey, M., 2010, "Men and domestic labor: A missing link in the global care chain", *Men and Masculinities*, 13(1): 126-149.
- \_\_\_\_\_, 2013,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The stratification effects of developments in migration policies in Europ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amily Life in an Age of Migration and Mobility: Theory, Policy and Practice (16-20 September 2013), *Norrköping, Sweden*.
- Kilkey, M., Lutz, H., and Palenga-Möllnbeck, E., 2010, "Domestic and care work at the intersection of welfare, gender and migration regimes: Some European experien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379-384.
- Kilkey, M. and Palenga-Möllnbeck, E. (eds), 2010, "Domestic and care work at the intersection of welfare, gender and migration regimes: European experien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Themed Section.
- Kilkey, M., Perrons, D., and Plomien, A., 2013, *Gender, Migration and Domestic Work*,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Kim, G. and Kilkey, M., 2016, "Marriage migration policy as a social reproduction syste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137-161, in *Family Life in an Age of Migration and Mobility: Global Perspectives through the Life Course*, edited by Kilkey, M. and Palenga-Möllnbeck, 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Kim, H. R. and Oh, I., 2011, "Migration and multicultural contention in East As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10): 1563-1581.
- Kim, J.-W. and Choi, Y.-J., 2013, "Farewell to old legacies?: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Ageing and Society*, 33(5): 871-887.
- Kofman, E., 2012, "Rethinking care through social reproduction: Articulating circuits of migration", *Social Politics*, 19(1): 142-62.
- Kofman, E. and Raghuram, P., 2006, "Gender and global labour migrations: Incorporating skilled workers", *Antipode*, 38(2): 282-303.
- Kwon, H.-j., 2007,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Korea: Origins, reforms and future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Policy (7-8 February 2007)*, Cairo, Egypt.
- León, M., 2010, "Migration and care work in Spain: the domestic sector revisited",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409-418.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_\_\_\_\_, 1997, "Gender and welfare regimes: further thoughts", *Social Politics*, 4(2): 160-177.
- Lister, R., 1997,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Basingstoke: Palgrave*.
- Lister, R., Williams, F., Anttonen, A., Bussemaker, J., Gerhard, U., Heinen, J., Johansson, S., Leira, A.,

- Siim, B., Tobio, C., and Gavanas, A., 2007, "Gendering Citizenship in Western Europe: New Challenges for Citizenship Research in a Cross-national Context", *Bristol: Policy Press*.
- Lloyd, L., 2000, "Caring about carers: Only half the picture?". *Critical Social Policy*, 20(1): 136-150.
- Lutz, H., 2008a, "Introduction: Migrant domestic workers in Europe", 1-10, i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A European Perspective on a Global Theme*, edited by Lutz, H., *Surrey: Ashgate*.
- \_\_\_\_\_, (ed), 2008b,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urrey: Ashgate*.
- \_\_\_\_\_, 2011, "The New Maids. Transnational Women and the Care Economy", *London: Zed Books*.
- Lutz, H. and Palenga-Möllnbeck, E., 2010, "Care work migration in Germany: Semi-compliance and complicity",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419-430.
- MacAuslan, I. and Sabates-Wheeler, R., 2011, "Structures of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migra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ocial Protection for Social Justice (13-15 April 2011)*, Sussex, UK.
- Mahon, R., 2011, "Transnationalizing (child) care policy: The OECD and the World Bank", 77-93, in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s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edited by Mahon, R. and Robinson, F.,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Mahon, R. and Robinson, F., 2011, "Introduction", 1-17, in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s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edited by Mahon, R. and Robinson, F.,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Michel, S. and Peng, I., 2012, "All in the family? Migrants, nationhood, and care regimes in Asi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406-418.
- Milligan, C. and Wiles, J., 2010, "Landscapes of ca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6): 736-754.
- Ochiai, E., 2009, "Care diamonds and welfare regimes in East and South East Asian societies: Bridging family and welfare soc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18(1): 60-78.
- OECD-UNDESA, 2013, "World Migration in Figures", <http://www.oecd.org/els/mig/World-Migration-in-Figures.pdf>.
-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 Orozco, A. P., 2009, "Glob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in Times of Crisis: Assessing the Situation", [http://www.flacsoandes.edu.ec/web/imagesFTP/1271692373.Amaia\\_Perez\\_Orozco\\_Working\\_Paper\\_5\\_ingles.pdf](http://www.flacsoandes.edu.ec/web/imagesFTP/1271692373.Amaia_Perez_Orozco_Working_Paper_5_ingles.pdf).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ñas, R. S. and Kim, J. K., 2011, "Multicultural East Asia: An Introduc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10): 1555-1561.
- Peng, I., 2010, "The expansion of social care and reform: Implications for care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61-476.
- Peterson, S. V., 2003, *A Critical Rewriting of Global Political Economy: Integrating Reproductive, Productive and Virtual Economies*, *London: Routledge*.

- Rummery, K. and Fine, M., 2012, "Care: a critical review of theory, policy and practic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6(3): 321-43.
- Sainsbury, D.,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azzi, A., 2009, "Care regimes and national employment model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3(2): 211-232.
- Spencer, S., Martin, S., Bourgeault, I. L., and O'Shea, E., 2009, "The Role of Migrant Care Workers in Ageing Societies: Report on Research Findings in the United Kingdom, Ireland,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index.php?main\\_page=product\\_info&cPath=57&products\\_id=1341](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index.php?main_page=product_info&cPath=57&products_id=1341).
- Stenum, H., 2010, "Au-pair migration and new inequalities: The transnational production of corruption", 23-48, in *Global Care Work: Gender and Migration in Nordic Societies*, edited by Isaksen, L. W., *Lund: Nordic Academic Press*.
- Sung, S., 2003, "Wome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in a Confucian welfare state: The case of South Korea",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7(4): 342-360.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1-28, in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edited by Taylor-Gooby, 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as, C.,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4): 649-669.
-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London: Routledge*.
- UN-DESA, 2013,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3 revisio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a/estimates2/estimatestotal.shtml>.
- UN-INSTRAW., 2007, "Feminization of Migration", [http://www.wunrn.com/news/2009/05\\_09/05\\_18\\_09/051809\\_feminization\\_files/Feminization%20of%20Migration-INSTRAW.pdf](http://www.wunrn.com/news/2009/05_09/05_18_09/051809_feminization_files/Feminization%20of%20Migration-INSTRAW.pdf).
- Ungerson, C., 2000, "Thinking abou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long-term care in Britain: Does gender still matter?", *Journal of Social Policy*, 29(4): 623-643.
- Urry, J.,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Press*.
- van Oorschot, W. and Uunk, W., 2007, "Welfare spending and the public's concern for immigrants: Multilevel evidence for eighteen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40(1): 63-82.
- Wall, K. and Nunes, C., 2010, "Immigration, welfare and care in Portugal: Mapping the new plurality of female migration trajectories",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397-408.
- Wilkinson, M. and Craig, G., 2012, "Wilful negligence: migration policy, migrants' work and the absence of social protection in the UK", 177-198, in *Migration and Welfare in the New Europe. Social protection and the Challenges of Integration*, edited by Carmel, E., et al., *Bristol: Policy Press*.
- Williams, F., 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Issues of Race, Gender and Class",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0, "Migration and care: themes, concepts and challenges", *Social Policy and Society*, 9(3): 385-96.
- \_\_\_\_\_, 2011, "Towards a transnational analysi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21-38, in

-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s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edited by Mahon, R. and Robinson, F.,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_\_\_\_\_, 2012, "Converging variations in migrant care work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63-376.
- Williams, F. and Gavanas, A., 2008, "The intersection of childcare regimes and migration regimes: A three-country study", 13-28, i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a European Perspective on a Global Theme*, edited by Lutz, H., *Hampshire: Ashgate*.
- Wimmer, A. and Glick Schiller, N., 2002,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beyond: Nation - state building, migr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Global Networks*, 2(4): 301-334.
- Yamanaka, K. and Piper, N., 2005, "Feminized Migr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Policies, Actions and Empowerment", <http://www.unrisd.org/publications/opgp11>.
- Yeates, N., 2004a, "A dialogue with 'global care chain' analysis: Nurse migration in the Irish context", *Feminist Review*, 77(1): 79-95.
- \_\_\_\_\_, 2004b, "Global care chain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6(3): 369-391.
- \_\_\_\_\_, 2005, "A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Social Policy and Society*, 4(2): 227-234.
- \_\_\_\_\_, 2011, "Going global: the transnationalization of Care", *Development and Change*, 42(4): 1109-1130.
- \_\_\_\_\_, 2012, "Global care chains: a state-of-the-art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in care transnationalization research", *Global Networks*, 12(2): 135-154.

Abstract

## 'Care-migration Intersection' Research in the West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Kim, Gyu Chan  
(Ulsa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tersection of care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The paper reviews the three bodies of research: care, migr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When defined as social reproductive labour, the concept of care not only captures individual/family level of experiences but it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 to analyse the diversity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path of its evolution.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ncept of care can help overcome so-called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the welfare state research. Accumulated evidence shows that only by applying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social realities as class, gender and race, can we properly examine the dynamics of care distribution. Existing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has found a widely observed trend of the 'migrantisation of care' in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the actual modality of care-migration intersection varies reflecting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is is why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must go beyond the well-known welfare regime types. The Korean case can expand the geographical coverage and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intersection research by including a new welfare state regime type (productivist or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and new patterns of migration (co-ethnic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is scholarship.

Key words: care, migration, regime, transnationalisation, care outsourcing, intersection

[논문 접수일 : 16. 11. 08, 심사일 : 16. 12. 14, 게재 확정일 : 16. 12. 23]